

가 가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콘서트  
— 동의

니나 레인 작

국립극단 콘서트—동의 *CON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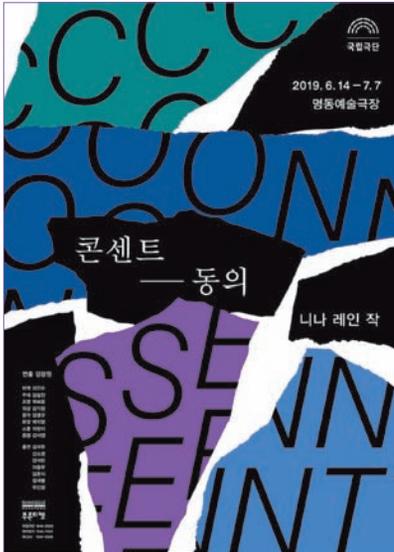
본 공연은 2017년 영국 국립극장 Royal National Theatre의  
도프만 오디토리움 Dorfman Auditorium(런던)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작 니나 레인 Nina Raine

번역 이인수

연출 강량원





**일정**

2019년 6월 14일(금) - 7월 7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작가소개	니나 레인	2
연출가 인터뷰	다시, 함께 살기 위하여 ▪ 정진세	4
줄거리		8
공연소개		9
출연진		10
작품 이해돕기-1	니나 레인의 <콘센트-동의> ▪ 이인수	14
무대 디자인 스케치		18
연습 노트		20
작품 이해돕기-2	용어 해설	24
연습 스케치		26
스태프 프로필		28
만드는 사람들		29



© Jack Ladenburg

## 니나 레인

NINA RAINE

니나 레인은 현재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극작가 겸 연출가로 시인 크레이그 레인Craig Raine의 딸이자 『닥터 지바고』의 소설가 보리스 파르테르나크Boris Pasternak의 조카 손녀이기도 하다. 문학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로열 코트 극장Royal Court의 지역 청년 연극 연출가 양성 프로그램Regional Young Theatre Director Scheme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로열 코트를 비롯한 여러 극장에서 연출가로 작업하였고 *Unprotected*로 TMA 최우수연출상을 수상했다. 처음 작가로 참여한 *Rabbit*은 이브닝 스탠다드 찰스 원투어 신진극작가상과 비평가협회 신진극작가상을 수상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작가로서 두 번째 작품인 *Tribes*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박정희 연출)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한국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주요작품]

연극	2018	<i>STORIES</i> 영국 국립극장(런던)_작/연출	
	2018	〈콘센트-동의CONSENT〉 해럴드 핀터 극장(런던)_작	
	2017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TRIBES〉 게이트 극장(더블린)_작	
	2017	〈콘센트-동의CONSENT〉 영국 국립극장(런던)_작	
	2013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TRIBES〉 CTG(LA)_작	
	2013	<i>LONGING</i> 햄스테드 극장(런던)_연출	
	2012	<i>JUMPY</i> 듀크오브요크 극장(런던)_연출	
	2011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TRIBES〉 버로우가 극장(뉴욕)_작	
	2011	<i>JUMPY</i> 로열 코트 극장(런던)_연출	
	2010	<i>TIGER COUNTRY</i> 햄스테드 극장(런던)_작/연출	
	2010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TRIBES〉 로열 코트 극장 다운스테어(런던)_작	
	2009	<i>SHADES</i> 로열 코트 극장 업스테어(런던)_연출	
	2009	<i>THE DRUNKS</i> RSC(런던)_각색	
	2008	<i>RABBIT</i> 시드니 시어터 컴퍼니(시드니)_작	
	2006	<i>RABBIT</i> 올드 레드 라이언(런던)/트라팔가 스튜디오(런던)/ 브릿오프 브로드웨이 페스티벌(뉴욕)_작/연출	
	2006	<i>UNPROTECTED</i> 에브리맨 극장(리버풀)/트래버스 극장(에든버러)_연출	
	2004	<i>VERMILLION DREAM</i> 솔즈베리 극장(솔즈베리)_연출	
		외	
	방송		‘BOARDERS’ ‘CLASS’ ‘MISTRESSES’
	라디오		‘Alan Howard Reads’

[수상]

2012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작품상 Drama Desk Award for Outstanding Play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TRIBES〉
2012	뉴욕 드라마 평론가협회 외국 작품상 New York Drama Critics Circle Award for Best Foreign Play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TRIBES〉
2012	오프 브로드웨이협회 작품상 Off-Broadway Alliance Award for Best New Play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TRIBES〉
2009	이브닝 스탠다드 연극 어워드 및 평론가협회 신진연극인상 Evening Standard Theatre Awards and Critics' Circle Award for Most Promising Newcomer <i>SHADES</i>
2006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어워드 및 TMA 연출상 Amnesty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Award and TMA Best Director Award <i>UNPROTECTED</i>
2006	이브닝 스탠다드 연극 어워드 및 평론가협회 신진극작가상 Evening Standard Theatre Awards and Critics' Circle Award for Most Promising Playwright <i>RABBIT</i>
2006	스핑크스 극장 신진극작가상 Writer Shortlisted for Sphinx Theatre's Brave New Roles <i>TIGER COUNTRY</i>

※ 한국에서 공연되지 않은 작품은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위해 영어 원어로만, 정식 공연되었던 작품은 한국어 제목과 원어를 병기 하였습니다.



강양원

연출—강양원 Kang Yang-Won

극단 동 연출·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

연극

〈잔다리 너머 제물포〉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너의 후일은〉  
 〈베서니 집〉 〈나무 위의 군대〉 〈계공선〉  
 〈나는 나의 아내다〉 〈칼집 속에 아버지〉  
 〈상주 국수집〉 〈비밀경찰〉 〈테레즈 라캥〉  
 〈내가 누워 죽어 있을 때〉 외

수상

- 2018 제55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연극 베스트3,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7  
〈그름,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 2016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연출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연극 베스트3,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7  
〈베서니 집〉
- 201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연극 베스트3 〈나는 나의 아내다〉
- 2010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연극 베스트3, 월간 한국연극 선정 공연 베스트7 〈비밀경찰〉
- 2008 제45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극단 동’ | 제1회 대한민국연극대상 무대예술상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 2008 PAF연출상 〈테레즈 라캥〉

# 다시, 함께 살기 위하여

진행·정리 정진세\_극단문 극작가

**정진세** 희곡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끌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대본을 보면서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량원**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 형식이 함께 있어서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요. 시작은 희극적인 드라마로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진지한 비극까지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비극의 측면에서 보면, 코러스와 함께 인물들이 토론을 하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재판을 하거나 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 비극의 형식과도 묘하게 맞아 떨어지지요. 한편으로는 관객들에게도 각각의 입장이 점차 이입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대의 원형극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무대의 디자인에도 자연스럽게 기입이 되었습니다.

**정진세** 번역에 대한 지점도 궁금한데요. 영국의 작품이 한국의 무대로 올 때, 그 맥락에서 고민했던 지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강량원** 영국의 상황으로 보게 할 거냐, 아니면 꽤 많은 부분을 우리 모습으로 보게 할 거냐 하는 지점이 어려웠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감각까지도 우리 쪽으로 많이 갖고 와서 표현해야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국적인 상태 그대로 놔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자 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인물이 한국식으로 번안되어 다가와 버리면, 관객들이 인물의 입장을 보게 되기보다는 거기서 연상되는 한국적인 현실만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작품에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진세** 연출가와 배우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했던 지점들이 궁금합니다. 연습을 할 때 어떤 지점을 '동의' 하셨나요?

**강량원** 아무래도 제가 배우들의 행위나 움직임들을 바라볼 때, 말보다는 움직임을 사용하는 편이니까요, 각각의 단위들을 흐름 속에 두지 않고, 어긋나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말 같은 경우도 의미의 단락들을 나눠서, 그것들이 명확하게 각각의 의미들로 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분절해서 말하기로 했어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인물이 만나'지'는, 만나'게 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작용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의 장면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들이 자기 스스로 설계해서 만든 것입니다.

**정진세** 작품을 단일한 기법이나 흐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처럼 한 작품 안에 여러 장르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연극은  
건축 같아요.  
몸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죠.



**강량원** 저에게 연극은 건축 같아요. 몸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그게 내용에 입각한 흐름이 기보다는, 배우들의 몸과 말들의 구성체였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세워질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서는 여러 형식들과 장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하자고 했어요. 이런 설계들을 함께 짚어나갔고, 그것에 맞춰 배우들이 하나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진세** 리듬이 빠르다고 느껴져요. 속도감이 계속 느껴졌고요. 최근에 강량원 연출가의 작품들이 왜 이렇게 빨라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량원** 작품이 길잖아요. (웃음)

**정진세** 그간의 무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직설적이고 히스테릭한 감각들 -이를테면 피로감, 혐오감, 뻔뻔함, 질투심, 분노, 유아적인 행태 그리고 환각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하게 나타나서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감각들, 정서들을 어떻게 이끌어 냈는지 궁금합니다.

**강량원** 배우들과 함께 발견한 지점이, 극중 인물들이 ‘편가르기’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중에 누군가는 낙오되거나 분리되거나 배제되죠. 그걸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예를 들어,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 그건 되게 피로한 일거든요. 아웃팅(outing)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질 수밖에 없는 예민한 긴장 상태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떨어져나간 사람은 복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복수를 당한 사람은 또 다시 복수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매 장면 계속됩니다.

**정진세** 자기가 속해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인물들이 잘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강량원** 영국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 즉 계급적인 문제도 작동하고 있죠. 이를테면 좌파에 대한 혐오도 있고요. 스스로 진보라고 여기지만 인권변호사라는 말을 하면서 상대를 조롱하기도 하고요. 블루칼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나오는데 그게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색과 어우러져서 강해지기도 합니다.

**정진세** 온갖 혐오가 종합선물세트로 나오더라고요. 여성혐오, 남성혐오, 연극혐오, 법혐오, 동성애혐오, 지역혐오, 아동혐오까지. 상대를 혐오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러한 혐오를 발동시키면서 위악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되는 말들, 그리고 폭력적이고 거친 표현이 굉장히 난무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관객에게 불쾌감을 더 유발시키려는 극작가의 전략이기도 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강량원** 사실 원본에는 더 있었는데요, 많이 줄였습니다. (웃음) 지금은 이들이 스스로 진보의 표식이나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로 수위를 조정했고요, 혐오의 표현도 그들의 언어사용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말을 막 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드러나도록, 그것이 재현적인 표현에만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진세** 미투 이후의 한국연극의 관객들은 그러한 장면들을 보다 예민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현적인 연기가 아니라 배우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좀 약간 틀어진 해석으로 마주하니, 묘하게 관심이 되면서도 또 동시에 묘하게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 지점은 관객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강량원** 처음부터 혐오의 얘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저도 희곡을 읽을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작품이 혐오 자체를 전시하기보다는 문제제기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기 입장을 세우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가해-피해’의 구도와 정치적 지형들을 보는 거죠. 자신이 처한 현재의 관계들에서부터, 더 넓은 관계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게 지금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거든요.

**정진세**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서로 간의 고통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하는 주제들이 읽혀졌습니다.

**강량원**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공감을 받아내는 일, 그러니까 관계가 이어질지 멈추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잇는 일이 실상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극중에서 남자가 자신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지점들이 재미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변호사로서 공적인 행위를 해왔던 어떤 것이, 지금은 자기에게 아주 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의 경험을 통해,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으면서 알게 된 사실, 즉,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되고요. 친구들의 관계에서 벌어진 싸움을 수습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남자가 누구의 입장에서 있는가를 알게 되죠.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모는 재판을 통해 그게 곧 나의 죽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멸시켜버리면서도 이 남자의 공감을 얻어내기까지의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공감을 얻는 것은 그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 그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작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비극인 <메데이>와도 연결이 되고요.

**정진세** 그 주제가 굉장히 동시대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고통을 준 사람, 고통을 야기한 사람들 간의 문제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즉 ‘공감’ 일텐데, 권력자인 가해자는 절대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죠. 부부사이로 놓고 보자면, 서로 간에 공감이 되게 잘 이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구요.

**강량원** 이 작품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성격의 차이보다는- 권력의 차이라는 지점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간 문화나 언어가 다른 것처럼 말해왔지만 실상 정치의 문제였다는 사실어요. 부부 혹은 반려자와 함께 산다고 하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가장 근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라는 것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것의 바탕은 ‘공감’이고 ‘동의’여야 하지 않을까. 비극이라는 파국 이후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러한 감성이 아닐까 합니다.

“  
‘사회’라는 것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것의 바탕은  
‘공감’이고  
‘동의’여야 하지 않을까.  
”

## 줄거리 Synopsis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키티와 에드워드 부부는 친구 부부인 레이첼과 제이크를 초대해 집에서 겸 출산 파티를 연다. 행복해 보이던 레이첼과 제이크 부부는 최근 제이크의 외도가 들끓나면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키티와 에드워드는 친구 부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그리고 그 때, 피의자 변호인이었던 에드워드의 활약으로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패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Kitty and Edward have just had a baby. They invite their friends Rachel and Jake to their house for a party. At first glance, Rachel and Jake seem like a happily married couple, but Jake's recent affair has placed a huge strain on their relationship. Kitty and Edward are divided over their friends' issue. Then, in one of Edward's cases, a rape victim gets defeated in the court.



## 공연소개

“처음 작가로 선보인 연극 *RABBIT*은 전문직 젊은이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들의 10년쯤 후의 삶을 담고자 쓰기 시작한 희곡이 <콘센트-동의>입니다.

(이 작품은 ‘미투 캠페인’ 이전에 발표된 것이지만) ‘미투’ 관련하여 분명히 어떠한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극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중의 이슈가 되어야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영국 국립극장 홈페이지 작가노트 중

## 공연



2017년 4월 4일-5월 17일 [초연]

영국 국립극장 Royal National Theatre  
도프만 오디토리움 Dorfman Auditorium,  
런던

연출\_로저 미첼 Roger Michell



2018년 5월 18일-8월 11일

해럴드 핀터 극장 Harold Pinter Theatre,  
런던

연출\_로저 미첼 Roger Michell

## 출판



CONSENT 희곡집

2017년 3월  
NICK HERN BOOKS, 런던

정리 박소영\_컴퍼니매니저

## 니나 레인의 가장 즐겁고 지적인 연극 중 하나!

오직 레인과 같은 지적인 작가만이 끔찍한 지성의 결점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지적인 생각의 불충분함을 일깨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디펜던트 The Independent

## 관객은 이 지적인 연극에서 판사와 배심원이 된다.

니나 레인은 법과 정의 사이에 직면한 결과, 관객들로 하여금 한 사례의 옳고 그름에 대한 치열한 도덕적 질문을 던지는 지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이 희곡은 법에 대해 냉소적이지 않으면서 비판적이다. 연극은 전문직 변호사들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맡은 사건을 그저 얼마나 가벼운 농담거리로 여기는 지에 대해 잘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삶 또한 평범한 우리들과 다르지 않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증명한다.

—가디언 The Guardian

##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슈 드라마’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평소 강간사건을 쉽게 다루는 변호사조차도 자신의 성 문제와 직면했을 때 많은 것이 뒤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니나 레인은 한층 더 나아가, 논리적이고 명료한 블랙코미디면서 제멋대로인 감정들로 엉망진창인 현실을 내보인다. 그리고 레인의 등장인물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스쳐 지나가버린다. 그녀는 그렇게 뜨겁게,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많은 이야기들처럼 사람들의 삶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타임즈 The Times

## 긴장되고 재미있는 현대판 희비극

놀라지 말아라. 이것은 실패작이 아니다.

니나 레인은 뜨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흥미로운 현대의 비극적 코미디를 만들어 냈다. 오늘날 이런 대담한 연극을 과연 봐야할 가치가 있을까?

나의 판결은 ‘절대적으로 당연하다’.

—텔레그래프 The Telegraph



**김석주** Kim Seok-joo

에드워드 EDWARD

연극

-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18 | 남자 | 남산예술센터
- 〈저편의 영원〉 18 | 안드레이 | 남산예술센터
- 〈베서니 집〉 16 | 게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계공선〉 15 | 젊은어부 | 인디아트홀 공
- 〈쉬또 젤라찌 무엇을 할 것인가〉 15 | 로뿌호프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투명인간〉 14 | 아버지 | 남산예술센터 외
- 〈샘플054씨 외 3인〉 11 | 샘플199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비밀경찰〉 10 | 원로회장 | 아르크예술극장 대극장 외
- 〈테레즈 라캥〉 08 | 까미유 | 아르크예술극장 소극장 외
- 〈유령〉 08 | 만데르스 | 아르크예술극장 소극장
-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07 | 2남 | 아리랑 소극장 외



**신소영** Shin So-young

키티 KITTY

연극

-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18 | 소녀 | 남산예술센터
- 〈베서니 집〉 16 | 새년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상주국수집〉 15 | 아낙 | 아르크예술극장 소극장
- 〈쉬또 젤라찌 무엇을 할 것인가〉 15 | 나타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투명인간〉 14 | 딸 | 남산예술센터 외
- 〈비밀경찰〉 12 | 식당주인 |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제음악축제
- 〈테레즈 라캥〉 12 | 라캥부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 〈몽상가들〉 12 | 소영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마담 워드 더 독〉 11 | 안나 | 설치극장 정미소
- 〈샘플054씨 외 3인〉 11 | 여관주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이종무** Lee Jong-moo

팀 TIM

연극

- 〈고독한 목욕〉 19 | 송씨 | 백성희장민호극장
- 〈록앤롤 Rock 'N' Roll〉 18 | 안 | 명동예술극장
- 〈운명〉 18 | 양길삼 | 백성희장민호극장
-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 18 | 준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3월의 눈〉 18 | 황씨 | 명동예술극장
- 〈비평가〉 17 | 스카르파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그렇게 산을 넘는다〉 17 | 아빠 | 아라리뮤지엄 소극장 외
- 〈과학하는 마음-숲의 심연〉 16 | 일호 |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 〈깃븐우리절날〉 15 | 구보 박태원 | 선돌극장
- 〈알리바이 연대기〉 14 | 청년 태용 | 백성희장민호극장
- 〈숨 쉬러 나가다〉 12 | 조지 불링 | 대학로 예술극장 3관
- 〈영원한 평화〉 12 | 임마누엘 | 원더스페이스 네모극장 외

수상

2016 제16회 한국 국제 2인극 페스티벌 연기상



**주인영** Joo In-young

자라 ZARA

연극

- 〈텍사스 고모〉 18 | 사춘기 딸 | 백성희장민호극장
- 〈운명〉 18 | 인근 여인 을 | 백성희장민호극장
- 〈얼굴도둑〉 18 | 점쟁이여자 | 백성희장민호극장
- 〈간혹, 기적을 일으킨 사람〉 17 | 그레이스 | 나온 씨어터
- 〈1945〉 17 | 숙이 | 명동예술극장
- 〈인어, 바다를 부른 여인〉 16 | 솔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15 | 경숙이 | 삼일로창고극장 외
- 〈반신〉 14 | 수라 | 명동예술극장
- 〈별무리〉 14 | 마리안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야끼니꾸 드래곤〉 11 | 미카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외
- 〈선착장에서〉 05 | 레지 | 삼일로창고극장 외
- 〈기생비생춘향전〉 02 | 향단이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외

수상

2006 제43회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2006 제11회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정새별** Jung Sae-byul

레이첼 RACHEL

연극

- 〈고독한 목욕〉 19 | 여학생 | 백성희장민호극장
- 〈록앤롤 Rock 'N' Roll〉 18 | 에스메 | 명동예술극장
-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8 | 공주 | 명동예술극장
- 〈성〉 18 | 프리다 | 명동예술극장
- 〈1984〉 17 | 줄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17 | 미소 | 소극장 판
- 〈가족〉 17 | 박애리 | 명동예술극장
- 〈심청〉 17,16 | 간난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 〈복새통의 겨울이야기〉 16 | 페르디타 외 |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극장
- 〈썬샤인의 전사들〉 16 | 송시자 외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고등어〉 16 | 강경주 | 소극장 판
- 〈외계인들〉 15 | 에반 | 대학로 게릴라 극장 외

수상

2018 제5회 서울연극인대상 신인연기상

**임준식** Im Jun-sik

제이크 JAKE

연극

- 〈고독한 목욕〉 19 | 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 〈햄릿\_아바따〉 18,17,16 | 햄릿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 〈오솔로〉 18 | 하산 아스푸르 | 명동예술극장
- 〈페스트〉 18 | 젊은 베르나르 리유 | 명동예술극장
- 〈성〉 18 | 슈바르처 외 | 명동예술극장
- 〈사거리〉 17 | 영하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모범생들〉 17,13 | 안종태 | 대학로 자유극장 외
- 〈세상친구〉 17 | 만석 | 드림시어터 외
- 〈일리아드〉 16,12 | 아가멤논 | CJ 아지트 대학로 외
- 〈연옥〉 16 | 남자 | 예그린시어터
- 〈경성의 테러리스트〉 14 | 김상욱 | 대학로 예술극장 3관 외
- 〈히스토리 보이즈〉 14,13 | 럽지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외



**양서빈** Yang Savine

게일, 로라 GAYLE, LAURA

연극

- 〈록앤롤 Rock 'N' Roll〉 18 | 렌카 | 명동예술극장
- 〈운명〉 18 | 박메리 | 백성희장민호극장
- 〈3월의 눈〉 18 | 한국관광객 외 | 명동예술극장
- 〈빛의 제국〉 17,16 | 소지 | 명동예술극장 외
- 〈탈출, 날숨의 시간〉 16 | 미선 | 국립극장 하늘극장 외
- 〈홍도〉 15,14 | 홍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 〈칼로막베스〉 14,11,10 | 맹인술사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 〈부활〉 13 | 미시 코르차기나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한꺼번에 두 주인을〉 12 | 클라리스 | 명동예술극장
- 〈들소의 달〉 11,10 | 선녀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 〈락희맨쇼〉 11,09 | 나미 | 더 스테이지
- 〈푸르른 날에〉 11 | 정혜 | 남산예술센터 외

수상

2015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 니나 레인의 〈콘센트-동의〉

니나 레인의 〈콘센트-동의〉 첫 장면은 소위 중산층 전문직 부부들의 집들이 파티이다. 얼마 전 새 집으로 이사했으며, 더불어 새로운 생명까지 맞이하여 부모가 된 에드워드와 키티 부부의 집에 에드워드의 오랜 친구인 제이크와 레이첼 부부가 찾아온 것이다. 전직 편집자였던 키티를 제외하고 이들은 모두 변호사들이다. 적당히 서로를 놀리기도 하지만 이들은 교양 있으며 유머 감각이 넘치는 행복하고 평범한 사회의 중상위 계층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 영화들 〈노팅힐〉이나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말이다. 단 하나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이들은 자신이 강간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다. 잘 들어보면, 그들이 범죄 행위를 묘사할 때 주어 ‘나’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변호를 맡고 있는 고객들, ‘그/그녀’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상한 언어 습관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상 생겨난 특수한 언어 패턴이기도 하다. 고객의 범죄 행위를 자신이 저지른 것 인양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는 것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인수\_〈콘센트-동의〉번역

으로는 그들의 오만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객들 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결코 그들과 같은 범 죄자가 아니라는 자신감 말이다. 그들은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어를 뒤바꾸어 말하는 언어적 유희를 즐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은 결코 넘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선 너머에 있는 범죄 행위 경험을 마치 게임처럼 관음적으로 경험하는 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남성인 제이크와 에드워드는 섹스에 대해, 특히 성적 대상으로서 여성에 대해 누가누가 더 세게 말하나 경쟁하듯이 하고 있으며 이것을 여성들은 불편해하지만 오히려 그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묘하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의 소극적이고 작은 표현들을 남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이렇게 니나 레인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들 두 쌍의 부부의 삶 속의 미세한 균열들을 보여준다.

이 미세한 균열을 파열시켜 위험한 낭떠러지로 만드는 것은 지금 에드워드와 그의 또 다른 변호사 친구인 팀이 서로 반대편에 서게 된 강간 사건이다. 그리고 레이첼이 제이크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그를 집에서 쫓아낸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은 이들의 삶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안전할 것 같던 키티와 에드워드의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 이 두 사건은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경험에 대해, 흑과 백으로 가





를 수 없는 회색의 모호한 영역들에 대해 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등장인물과 관객들에게 던진다. 작가는 ‘연관되어 있지만 상호 파괴적인 두 개의 진실을 주장하는 대적하는 두 인물’을 끊임없이 부딪히게 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상호 파괴적이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진실 중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쉽게 판가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충돌들도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모호해져 버린다. 제이크와 레이첼 부부의 갈등을 두고 키티와 에드워드의 의견은 갈린다. 키티와 에드워드의 상반된 주장을 두고도 제이크와 레이첼의 의견이 갈린다. 진실에는 언제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누구도 상대방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레이첼과 결혼한 후로도, 절친인 에드워드가 헛갈려 할 정도로 수많은 외도를 해왔던 제이크가 형편없는 쓰레기로 보이기도 하지만, 레이첼에게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두려움에 어린아이처럼 우는 그의 연약한 모습은 그가 용서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레이첼이 그의 외도에 맞불이라도 놓듯 다른 남자와 오럴섹스를 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중 어느 하나가 더 낫다는 판단을 유보시킨

다. 그리고 <콘센트-동역>의 극적 갈등의 주축을 이루는 키티와 에드워드 사이의 부부사이 공간은 더 더욱 모호하고 판단이 어렵다. ‘공간’의 법적인 정의는 명료하지만, 실제로 키티의 마음속에서 그 순간 일어났던 진실은-심지어 키티 자신에게도-모호하다. 키티의 말대로 “정직하지 않고,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뒤틀린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 것을 직업으로 삼아 마음이 메말라 버린 듯한 에드워드이지만, 그런 그에게 공감을 가르치기 위해 복수를 시작한 키티 역시 그 복수로 인해 마음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이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네 명의 친구들 중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법 제도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인물이 그 누구보다 딱딱하고 비인간적으로 변해간다. 처음에는 키티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던 관객들마저도 그녀의 ‘진실’을 슬며시 의심하게 되면서 ‘진실’ 혹은 ‘도덕적 올바름’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님을 인정하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진실의 판가름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작가가 극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강간 피해자를 법 제도가 다루는 방식이다. 에드워드가 설명하듯, 법이 개인적 복수의 수단이 되거나, 범인을 잡겠다는 목적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법은 진실이 누군가의 의도와 조정으로 인해 사실과는 다르게 구성되고 채택되고 입증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한다. 게일에게 있었던 일의 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게일이 그녀를 강간한 사람의 폭력 전과를 알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빠지고, 그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해지는 식으로 말이다. 법을 통하면 사실은 언제나 뒤틀리기도 하고 바뀌어 지기도 한다. 작가에 따르면 법과 윤리성은 오히려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에드워드이다. 그는 “난 솔직히 전체 시스템 자체에 신뢰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논쟁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논쟁, 합리성, 논리,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아—그냥 결심을 하는 거지”라고 말한다.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법제도의 속성을 스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법제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언어는 피해자의 경험을 담아내지 못한다. 게일의 경험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왜곡되고 소외된다.

작가는 이렇게 침묵을 강요당하고 소외된 게일에게 마음껏 할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을 줄 뿐 아니라 그녀에게 극의 처음과 끝을 모두 할당한다. 피해자의 경험이 타인의 언어로 규정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고통과 소외의 경험이 우리 삶 언저리와 중심에 언제나 어른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팀의 거실을 가로질러 주전자를 날아가게 하고 벽에 손자국을 남기는 어떤 힘처럼 말이다.

극의 시작 시점에서 이 중산층의 전문직들은 자신들이 이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안전하며 도덕적 윤리적 모호함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극의 마지막에 이들은 균열되고 갈라진 위태로운 바닥에 자신들이 발을 딛고 서 있음을 알게 된다. 키티와 에드워드 부부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접어야만 하는 커다란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은 극의 시작과 마지막 장면에서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 흑과 백으로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는 여러 관점과 진실들이 서로 뒤엎겨 잔인하게 우위를 다투는 사적, 공적 영역을 살아가면서, 두 인간이 서로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공존하고 있는 ‘타자’를 타자화 시키지 않고 어루만지고 끌어안으며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니나 레인이 그리는 그 이상하고 묘한 극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한다.



〈콘센트-동역〉의 무대미술은 단지 사실의 재현이 아닌 사물과 공간의 진정한 리얼리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극의 내용과 공간은 표면적으로 매우 일상적이고 사실적인, 마치 TV 드라마 세트를 연상케 합니다. 지극히 설명적인 드라마적인 공간과 무대미술은 자칫 충실한 재현에 머물러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이 작품의 본질적 질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극단적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의 성과 젠더에 대한 교묘한 양면성과 이중성에 주목하게 하며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미술적 은유와 상징이 미니멀리즘과 혼재하는 모순의 공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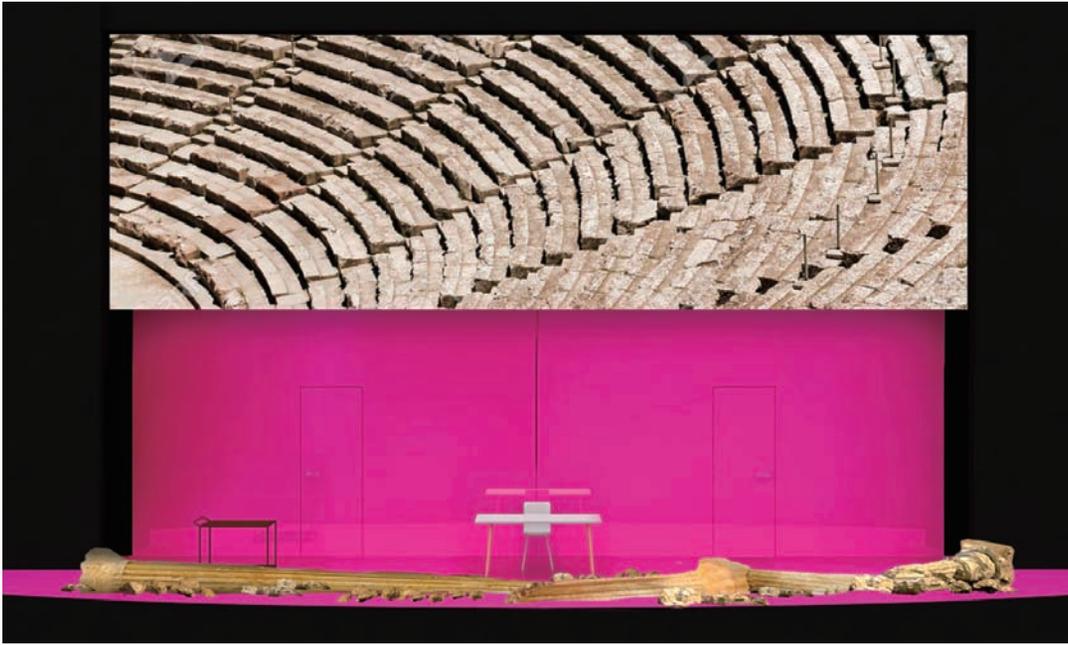
무대를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핫 핑크 컬러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립스틱의 대표적 색상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해서인지, 남성들이 좋아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핑크 종류의 컬러가 의미하는 지점은 바비인형만큼이나 매우 이중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임일진** Im, Il Jin

무대미술가 · 인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

연극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준대로 받은대로〉  
 〈열하일기만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페리클레스〉 〈베서니 집〉  
 〈해무〉 〈안티고네〉 〈복사꽃이면 송화 날리고〉 〈로맨티스트 죽이기〉  
 〈바나 아저씨〉 〈돈키호테〉 〈벚꽃동산〉 〈페르귄트〉 〈햄릿〉  
 〈해롤드앤모드〉 〈미드썸머〉

오페라 〈이성계, 해를 품다〉 〈주몽〉 〈처용〉 〈카르멘〉 〈보체크〉  
 발레 〈춘향〉 〈발레 뮤지컬, 심청〉 〈잠자는 숲속의 미녀〉 〈레실피드〉 〈뮤자게트〉  
 무용 〈Silla:에밀레〉 〈로미오와 줄리엣〉 〈련, 다시 피는 꽃〉  
 〈2018 새만금 상설공연. 해적2〉  
 창극 〈단태의 신곡〉 〈홍보가〉 〈심청〉 〈2010 춘향〉 〈안중근〉  
 뮤지컬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뒸다 심청〉 〈화성에서 꿈꾸다〉  
 〈전북브랜드, 춘향〉  
 외



핫 핑크 컬러로 채워진 무대 전체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처럼 서로를 투영합니다. 스스로를 비춰주고 있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사람과 오브제는 또 다른 허상과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집니다.

무대의 맨 앞쪽과 뒤쪽을 채우고 있는 그리스 고대 극장의 거대한 흔적들은 핫 핑크와 같은 공간에서 실존하는 이 극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극중극 장면뿐만 아니라 이 극의 전체를 관통하는 고대 그리스 극장의 파편들은 현대의 공간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종류의 가구들과 함께 단순히 연기를 위한 대도구가 아닌 각각의 오브제로서 존재합니다. 오브제 간의 개연성과 어울림보다는 각각의 물성과 개성에 충실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오브제의 언밸런스는 현대 사회의 성과 윤리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위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투영하는 핫 핑크의 거북함과 강렬함 속에서 고대 그리스 이후 지금까지의 성 윤리에 대해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플

자신만만한 에드워드와 침착한 키티, 철없는 제이크와 이성적인 레이첼, 어설픈 팀과 유연한 자라, 당황스러운 게일과 확고한 로라. 서로 상반되면서도 닮아있는 인물들은 끈적하게 섞여있다가도 한순간 가루처럼 흩어진다. 가볍게 훑날리는 그들의 취약한 관계가 낯설기도 한심하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원형이라는 사실에 공허함이 몰려온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이 인물들을 머리로 사랑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사랑하며 2개월 남짓 한 시간을 열심히 달려왔다.

임준식\_제이크 역: 에드워드와 키티에게 레이첼과의 이혼까지 온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눈물은 나지만 주위의 달램으로 추스르려다가, 화내다, 울다 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 2019. 4. 9

과정과 관점

숙제

〈콘센트-동의〉는 2019년 3월 말부터 부지런히 연습을 시작했다. 배우들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연기 과제가 있었으니, 매일 그 발표 준비로 인해 연습실은 고시촌의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들은 연출가의 연기방법론을 훈련함과 동시에 작품의 장면들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습 초반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빚댄 상황을 준비하여 연기, 중반은 대본의 인물 상황을 개별적으로 연기, 그리고 마침내 그 인물들을 만나기. 서로 만났으나 만나지 않은 듯 움직이는 배우들. 개인 한 명 한 명이 돋보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묘하게 이루어지는 조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여 자신의 몸을 그리고 무대 위를 채색한 배우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강량원\_연출: 연습 과정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연출가가 아이디어를 던지면, 배우들의 발표를 통해 완성해나갈 예정입니다. — 2019. 4. 1

이종무\_팀 역: 텍스트를 많이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장면에 대해 단락을 나누어 그 상황들만을 놓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발표했습니다. — 2019. 4. 5

정리 문새미·김다슬\_조연출

## 변호사

한국의 법률과 더불어 영국 법률체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현재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이은우 변호사를 초청하였다.

깔끔한 정장에 무테안경. 전문가의 아우라를 풍기는 이변호사는 영화/드라마에서 봐왔던 그들보다 차분하고 친절한 자태였다. 이에 더욱 신뢰가 갔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신감을 연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질문에 정확한 즉답으로 증명하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싶더했다. 복수(復讐)주의였던 과거의 법이 수많은 판례의 역사를 통해 사유체계를 유지하고 갈등해결 및 예방과 교화를 위해 변화해왔다는 사실에 법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되었다.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은 정의를 위해 이 길을 출발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은우\_변호사: 수사업무를 오랫동안 하여 온 사람들은 피의자를 조사하여 진실을 발견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그러한 특성이 성격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판을 진행하며 리드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적 특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에드워드의 경우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고 시니컬한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럴법하다고 생각하며 대분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중략)

게일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진실임이 확실하지 않으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간 사건이나 면식이 있는 사람들 간에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에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나 CCTV는 모두 현출되기에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이 진실일지를 판사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 2019. 5. 10 [프로덕션 강의 중]





## 욕설

법률 전문용어가 오가는 대사 속 선정적인 말과 욕이 난무하다.

소위 배운 사람들의 말이 참 거칠다. 입에서 마구 튀어나와 뒤섞인 침이 그들의 잘 차려입은 옷을 흥건히 적신다. 격한 욕설을 통해 다툼과 애정표현이 모두 가능한,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봤던 청소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쓰이는 이 ‘욕’이란 언어는 이제 그 본질의 특성이 개인의 직업, 나이, 계급을 뛰어넘는 듯하다. 그럼에도 욕의 외피를 차용해 사용하는 사춘기들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어른들의 욕설이 더 잔인한 것은 그 어원의 뿌리가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던져져 가슴에 박히기 때문 아닐까.

김현경\_인문학자: 실제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프랑스 유학 중에, 명문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 2019. 5. 3 [프로덕션 강의 중]

백지영\_분장디자이너: 대본의 욕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 2019. 5. 15

## 사투리

영국 작품에 경상도 방언이 웬 말?

한국 배우들이 낯선 외국 이름을 지니고 연기한다는 것, 그 인물들의 실존을 믿게끔 만드는 것이 연극의 마법이다. 외국의 방언을 한국의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무대 위에서만 가능한 어법일 것이다. 막이 시작되면서부터 ‘한국인 준식이 아닌 영국인 제이크입니다’ 라고 약속이 성사되듯, 경상도 사투리가 스코틀랜드 억양이 되는 관객과의 암묵적 약속을 제안해본다. 작품이 내민 손을 관객이 맞잡아 ‘동의’해주기를.

강왕원\_연출: 로라가 우연히(대본과는 다르게) 사투리를 썼는데, 게일과 로라를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면서 굳이 다르게 보이기 위해 사투리를 걷어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 2019. 4. 25



### 합심

여성의 시선이 중요한 이번 작품에서 남성인 강량원 연출은 이번 프로덕션에 여성의 비율이 더 많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본인이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반영하였다. 그의 견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균형추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자 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업을 한다는 것은 매번 어려우면서도 감동적인 일이다. 오직 작품을 위해 연출부, 디자이너, 국립극단 스태프, 그리고 독순이 막내 컴퍼니매니저까지 마음을 모았다. 쉬는 시간에도 더 나은 방향을 상의하는 모습은 연극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이라 감히 명명해본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힘든 과정을 기꺼이 이겨내는 이 바보들을 설명하기가 어렵겠다.

강량원\_연출: 레이첼이 왜 에드워드 편을 드는지가 의문이에요. 부부강간의 이슈가 예민한 만큼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영\_자라역: 레이첼의 경우, 나름대로 성공한 여성으로서 남성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인수\_번역: 레이첼 역시 유경험자에게 키티의 심리를 파악하고 상황을 이용한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2019. 4. 3.

김현경\_인문학자: 피해자의 심리에 공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일로만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모습, 경박하고 자신만한 태도를 그리지만 끝부분엔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관성적인 일처리 속에서 게일이 부당하게 당했다고 느껴집니다. 합법적인 일처리였지만 타자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하면서 들어보려는 노력의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객들에게는 강간이나 아니냐 자체가 논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티도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관객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각각의 문화에서 어떻게 읽힐지 궁금하네요. — 2019. 5. 3 [프로덕션 강의 중]

# 용어 해설

## 기소 起訴

‘기소’란 형사사건(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소’라고도 한다. 기소는 단순히 피해자를 위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의 피해자는 ‘증인’이 된다. 단, 범인의 연령, 지능, 환경, 동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대한민국—대한민국은 국가기관에 속한 검사만이 기소를 행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 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를 따르고 있다.

영국—영국은 기소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기소를 국가 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사인소추주의 私人訴追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 측이 고용한 변호사가 형사재판의 기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 후견인 문화

영국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1~5세기 경, 기독교(가톨릭)가 전파되어 국교로 정해졌으며 오늘날에는 영국 인구의 약 59% 정도가 기독교로 추정되고 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여 살아가는 이에게 신앙생활을 전달하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지도할 후견인을 정하여 이를 남자일 경우 대부분 godfather로, 여자일 경우 대모godmother라 지칭하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후견인 문화가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주로 태어난 아기가나 종교에 입문한 신도의 세례식에서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에게는 감사 의미를 담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 영국(잉글랜드)의 변호사

영국의 변호사는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나뉜다. 영국의 오랜 법 역사와 함께 법정변호사가 존재하였고, 이후 사무변호사가 등장하였다. 본래 각 변호사의 역할에는 여러 차이가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 집권 시 개혁으로 그 구별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 변호사가 협력하여 재판을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법정변호사—소송과 관련하여 조언하거나 변론한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되, 고객으로부터 직접 교섭할 수 없고 사무변호사를 통해서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영국은 보통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는데, 법적으로는 사무변호사도 판사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법정변호사 중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 분야에 대한 판례에 정통하다.

사무변호사—사무변호사는 개인 혹은 동업의 형태로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개인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간단한 계약이나 유언장 작성, 재산 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금융, 국제무역, 환경 등 특수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담당한다. 법정변호사가 판례 연구에 강한 반면, 사무변호사는 실무에 강한 편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로, 메데이아 혹은 메디아라고도 한다. 콜키스 왕이자 태양신의 아들 아이에테스의 딸인 메데아는 황금양피를 찾으러 콜키스에 온 영웅 이아손과 사랑에 빠져 아버지와 가족들을 배신하고 도피한다. 그러나 모든 걸 걸고 사랑한 남편 이아손이 자신을 버리고 크레온 왕의 딸과 정략결혼을 하게 되자, 이에 분노한 메데아는 크레온은 물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아손에게 복수한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 작가 에우리피데스 Euripides가 이러한 메데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메데이아》에서 다루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로마의 극작가 세네카 Seneca가 다시 《메데이아》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무죄추정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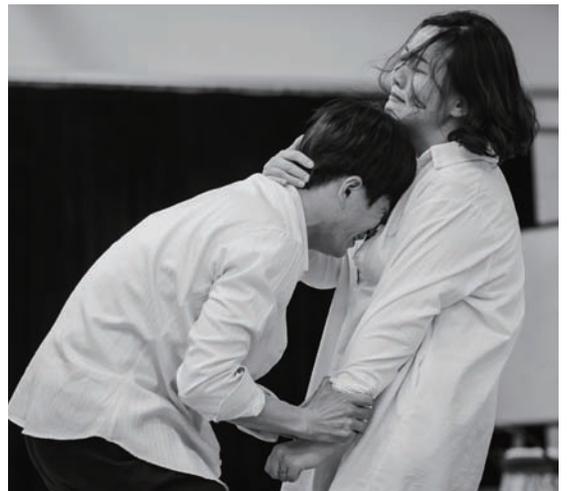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한다’는 원칙으로, 강력한 증거에 의해 혐의를 조사받고 있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되었다.

**리어왕 King Lear**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의 희곡으로 1608년에 발표되었다. 총 5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맥베스》 《햄릿》 《오셀로》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 불린다. 노쇠한 왕 리어는 3명의 딸들에게 국토를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고 누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지 묻는다. 마음에 없는 딸로 아버지의 환심을 산 거너릴과 리건은 제 몫의 재산을 물려받지만, 딸로 다할 수 없는 사랑에 차라리 입을 다문 막내딸 코딜리어는 재산을 몰수당한다. 그러나 자신의 우매함으로 사랑하는 막내딸과의 연을 끊는 것도 모자라 믿었던 두 딸에게 내쫓기어 폭풍우 치는 황야에 버려진 리어는 왕도 한 인간에 불과하며, 인간은 한낱 동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는다. 한편, 프랑스의 왕비가 된 코딜리어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진격하였으나 결국 병사의 손에 교살된다. 리어는 죽은 딸의 시체를 안고 슬픔에 못 이겨 절망하고 나머지 두 딸은 불륜을 저질러 파탄에 이른다.

**새디즘 Sadism**

성적 상대자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행위로 성 도착증의 하나로 분류된다. ‘가학증’이라고도 한다.





작—니나 레인 Nina Raine

프로필 \_ 3페이지

번역—이인수 Lee Insoo

연극 [번역] <여왕과 나이팅게일> <스테디레인>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글로리아> <바나와 소냐와 마샤와 스파이크> <가족이라는 이름의 부족> <노란 달: 레일라와 리의 발라드> <필로우맨> <히스토리 보이즈> <페리클레스>

[연출]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필로우맨> <두 개의 방>

[드라마투르기] <인간의 가장 오래된 외벽> <글로리아> <키친>

연출—강양원 Kang Yang-Won

프로필 \_ 4페이지

무대—임일진 Im Il Jin

프로필 \_ 18페이지

조명—최보윤 Choi Bo-yun

연극 <나는 살인자입니다> <록앤롤>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알 앤 제이> <죽고 싶지 않아> <피와 씨앗> <목란언니> <나무 위의 군대> <알리바이 연대기> <투명인간> <히스토리 보이즈> <나는 나의 아내다> 외

뮤지컬 <꽃뵈이, 이상>

음악 <김광민 콘서트> <혁오 콘서트 '23'> <최백호 40주년 기념 콘서트> <이적 소극장 콘서트 '무대'> <한승석&정재일 '바리 abandoned'> <비빙 '이중공간'> <비빙 '피-避-P project'>

수상 2017 제54회 동아연극상 무대예술상  
2016 제3회 서울연극인대상 스태프상 조명  
2013 제34회 서울연극제 무대 예술상 조명

의상—강기정 Kang Gi-jung

연극 <하거도> <텍사스 고모>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X> <냉면> <하녀들>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비극의 일인자> <싸지르는것들> <추문패거리> <인천노트> <위대한 유산> <유령> <일곱집매> <차이메리카> <1동 28번지 차숙이네> <왕은 왕이다> <해무> <깃분우리절문날> <토일릿 피플> <베서니 집> <나무 위의 군대> 외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멋진인생>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그리스> <심야식당> <민중의 적> <오피리어> 외

오페라 <잔니 스키키> <아랑> <카르멘> <피노키오> 외

음악—장영규 Jang Young-gyu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얼굴도둑> <백치>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실수연발> <계공선> <이영녀> <광부화가들> <페리클레스> <아버지와 아들> 외

창극 <산불>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 <극성> <암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외

분장—백지영 Baek Ji-young

연극 <얼굴도둑> <대학살의 신> <레드> <텍사스 고모> <겨울이야기> <시련> <토막> <이영녀> <유리동물원> <단테의 신곡> <반신> <엄마를 부탁해>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은밀한 기쁨> <스카이라잇> <햄릿> <한겨울에 두 주인을> <아워 타운> <벚꽃동산> <황구도> <추문패거리> <인형의 집> <갈매기> <동 주앙> <시라노 드 베르주락> 외

뮤지컬 <다윈 영의 악의 기원> <파가니니> <마리아 마리아> <신과 함께> <파리넬리> <빈센트 반 고흐> <살리에르>

소품—박현이 Park Hyunyi

연극 <단편소설집> <세기의 사나이> <소설가 구보씨와 경성사람들> <운명> <말피> <랭귀지 아카이브> <네더> <그리스의 여인들 안티고네> <심청>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 <왕과 나> <떠도는 땅> <해피투게더> <헤이그 1907> <농담> 외

음향—김서영 Kim Seo-young

연극 <나생문> <혈우> <가옥의 원> <진흥빛 소녀> <잠수괴물> <파국> 외

뮤지컬 <정글라이프> <달그림자> <타이커> <도전 19벨> 외

무용 <엘 비아헤> <신의 춤 인간의 춤>

조연출—문새미 Moon Sae-mi

연극 [연출] <리처드 3세> <쉬쉬쉬> <중립국> <The Batman Recalls> <Strawberry Vale> <RUNNER> <(UNS)TABLE>

[조연출] <준대로 받은대로> <가지> <로베트로 쥬코> <한국인의 초상> 외

조연출—김다슬 Kim Da-seul

연극 [작/연출] <개화: 꽃은 핀다>

[조연출] <비명자들2> <비명자들1>

## 만드는 사람들

### 출연

김석주 에드워드  
신소영 키티  
양서빈 게일/로라  
이종무 팀  
임준식 제이크  
정새별 레이첼  
주인영 자라

### 스태프

작 니나 레인 Nina Raine  
번역 이인수  
연출 강량원  
  
무대 임일진  
조명 최보윤  
의상 강기정  
음악 장영규  
분장 백지영  
소품 박현이  
음향 김서영  
조연출 문새미 김다슬

무대디자인 보 오미연  
조명디자인 보 광태준

무대기술 총괄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신승호 김정민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오퍼레이터 임수연  
음향감독·오퍼레이터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최정환 김태웅 장재우 문성룡  
의상진행 전요나 신은혜  
분장진행 고혜진 송윤미

무대제작 처음무대  
의상제작 휴보떼  
소품제작 품스  
조명팀 서승희 손민영 손은영 유승열  
정하영 최연수  
음향팀 이단비  
소품팀 이주연 최소리 김정란 고민재

영문자막 제작·운영 박소영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최윤영 이승이 김을  
마케팅 오지수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이정민 김효진 조영채  
대학생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메인디자인 프랙티스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불빔  
홍보·연습·공연사진 나승열  
홍보영상 602 STUDIO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 프로젝트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  
옥외광고 킨비즈커뮤니케이션  
문화공장오감  
홍보물 인쇄 인타임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티켓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매표 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하우스 매니저 김수현 김나래  
하우스 안내원 류혜민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빈수진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남희 임예은  
손유희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신혜원 장동률 고정윤  
유지울

희곡 및 저작권 검토 정명주 지영림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심소연  
제작진행 박소영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김성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 예술감독

이성열

## 사무국장

오현실

##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 나수경 청년인턴

##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정은서 청년인턴

##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승이 변정원 김울 홍보 | 박보영 한나라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조영채 청년인턴

##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 김무석 기술감독 |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 최솔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 |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복무·복리후생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박예원 정보화·교육 | 최태영 인사·제도관리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김연지 배규림 작극장

##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민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세별 조남용 주인영 홍아론



**이종무**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알리바이 연대기〉



**주인영**

〈콘서트-동의〉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이수미**

〈자기 앞의 생〉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정원조**

〈자기 앞의 생〉  
〈알리바이 연대기〉  
〈한여름 밤의 꿈〉



**양서빈**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장지아**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2019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한**

〈자기 앞의 생〉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경주**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김수아**

〈빠의 기행〉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이원희**

〈갈릴레이의 생애〉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정세별**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한여름 밤의 꿈〉



**홍아론**

〈고독한 목욕〉  
〈빙화〉  
〈한여름 밤의 꿈〉



**임준식**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스카팜의 간계〉



**강해진**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이호철**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박가령**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조남웅**

〈빠의 기행〉  
〈스카팜의 간계〉  
〈한여름 밤의 꿈〉

국립극단

# 작품개발실 OPEN

국립극단은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기획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5일 작품개발실을 새로 열었습니다.



## 작품개발실 주요사업

### 창단 70주년

2020년 국립극단 창단 70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합니다.

공연  
개막식과 폐막식 포함 축제 형식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전시  
70년 역사를 담은 공연자료 및 영상 아카이브 전시 기획  
출판

'국립극단 70년사' 발간  
준비위원 김방욱 허순자 노이정 김미도 이진아

### 70

###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1920 ~ 1940년대에 쓰인 한국 우수희곡을  
찾아내 무대화 합니다.

2018년 공연 예정작  
<운명> 작 윤백남 연출 김낙형  
<호신술> 작 송영 연출 윤한솔  
지원위원 양승국 이상우 김명화 김옥란 김남석

###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가면극, 인형극, 판소리, 대동굿 등  
한국 연극의 원형을  
동시대적 연극으로 현대화 합니다.

공연 2018. 9.30  
장소 국립극단 서계동 마당 외  
연희감독 김학수  
지원위원 신선희 손진책 이미원 김학수 안대천



### 희곡 우체통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신작 희곡을 찾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희곡을 투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작품은 수시 희곡낭독회에 초대됩니다.

접수처 [playpost@ntck.or.kr](mailto:playpost@ntck.or.kr)

우체국장 조만수

운영위원 심재찬 정명주



### 디지털 아카이브

국립극단의 지난 70년간 400여 작품에 달하는  
공연자료를 한데 모아 연구자, 관객 등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2018 국내외 사례연구 및 조사

2019 자료 수집 및 구축 작업

2020 4월 OPEN

책임연구원 정주영 연구원 유혜영 리봄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mailto: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을 제공

낭만이 깃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우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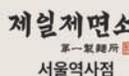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p>도서 구매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잡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p> <p>02-6004-7391</p>	 <p>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 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p> <p>02-779-7871</p>
 <p>매콤순살닭튀김 소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p> <p>02-313-1880</p>	 <p>호텔28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p> <p>02-774-2828</p>
 <p>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p> <p>02-778-6731</p>	 <p>햄버거 단품 구매 시 탄산음료 혹은 아이스커피 M, 따뜻한커피 S 중 1잔 증정 (행복의 나라 제외) 맥카페 구입 시 동일 제품 1+1 증정</p> <p>070-7017-6404</p>

#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쇼케이스 우리연극 원형의 재발견 ②

# 판소리와 연극

## 송파의 경이- <노부인의 방문> 3막에 대한 '더듬'

연출 | 임영욱 음악감독 박인혜  
출연 | 김태한 박인혜 심미령  
안현영 정상화

6.21-23

## 다 다른 길.목.에서

구성·연출 | 배요섭  
작창·출연 | 김재훈 서어진  
송보라 정종임 황혜란

6.28-30

## 이야기마당 우여곡셀-판소리편

6.30

## 소극장 판



남산예술센터  
2019 시즌 프로그램

2018 제8회 벽산희곡상 수상작

인문  
사단법인  
남산  
다들  
같이

경지은  
민대식  
박훈규  
성수연  
오지나  
이미라  
임원옥  
최희진  
하지은

墨翟之守

묵적지수

2019.  
6.  
26.

7.  
7.

평일 19:30 토/일 15:00

작 서민준 | 연출 이래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공감은 무슨, 그런 지긋지긋한 얘기는 하지도 마.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 (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

